

야부우찌 교수에 대한 추억 선생의 인품과 학문을 기리며

전 상 운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만남

1968년 1월. 홍콩의 날씨는 우리의 봄 같았다. 공항에 첫 발을 디딘 나는 감개가 무량했다. 생전 처음 보는 이국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홍콩대학 중지(崇基) 컬리지에서 열리는 제1차 국제 동아시아 과학사 전문가 회의에서 나를 초청해 주어, 만나게 된 학자들 중의 한 분이 야부우찌(藪内) 교수였다. 그 때 자리를 함께 했던 학자들, 거의가 지금 우리와 친숙하게 교류하고 있는 낯익은 얼굴들이다. 야부우찌 교수를 비롯해서 호평옥(何丙郁), 나까야마(中山), 씨빈(Sivin, 席文), 램레이용이다. 니이덤(Needham)은 갑자기 무릎이 불편해져서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나, 전상운이 참석한 것은 행운이었고 이례적인 일이었다. 야부우찌와 니이덤이 내가 일본과학사학회지에 1962년과 63년에 낸 글을 보고 나까야마와 씨빈에게 추천한 것이다. 동아시아 전통과학의 주요 지역인 한국의 과학사를 하고 있는 전상운을 만나보고, 함께 앞으로 연구 협조할 유대를 갖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야부우찌 선생은 환갑이 갓 넘은, 조용하고 단정한 일본 학자였다. 영어회화는 서툴렀지만, 해독은 정확하고 구사하는 어휘는 적절했다. 나까야마 내외와 함께 나에게 각별한 호의를 나타내고 따뜻하게 대해줬다. 내가 쓰는 일본말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그 원활한 의사 소통 때문에 금방 가까워졌다. 그러나 선생은 일본식으로 켄(全)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Jeon)상이라 했다. 그런 그분의 나에 대한 호칭은 그 후 수십 년 변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의 회의와 여행이 끝나고 홍콩을 떠나는 날이었다. 공항 면세점에서 선생과 나는 생전 처음 나폴레옹 껌이라는 걸 샀다. 선생은 역시 생각보다 비싼 술이라면서, 그래도 돈이 남았으니 한 병 사야겠다면서 좋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는 술은 조금씩 비교적 즐기는 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기 돈으로 처음 사보는 양주 한 병에 즐거워하던 것도 순간이었다. 공항 검색대에서 그만 술병을 놔둔 채 비행기를 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 껌은

그를 또 한번 즐겁게 해주었다. 오오사가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한 토막의 에피소드는 아마도 나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때 산 꼬냑을 나는 결국 맛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교오또에서 열흘 가량 묵으면서 씨빈이 소개해준 여관 시라꾸소오(紫洛莊)의 주인 아주머니가 숙박비의 일부로 그것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진분겐(人文研)소장이었던 야부우찌 선생과의 점심 약속으로 기따시라가와(北白川)의 여관으로 만나러 갔던 나는 현관 앞에 기다리고 있던 까만 세단을 타고 교오(京)요리를 잘 한다는 일식집으로 안내되었다. 선생이 베풀어 준 최상급의 접대에 나는 감격했다.

연구회(研究會)

진분겐 과학사 연구실에서 야마다(山田) 조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선생은 나를 좋은 동료로 맞이하노라고 했다. 화요일 오후의 겐꾸카이(研究會)에서 선생은 나를 그의 공동 연구자들에게 친절히 소개해 주었다. 아마노(天野), 시노다(篠田), 무라까미(村上) 등의 권위있는 원로 학자들과 요시다(吉田), 시마오(島尾), 미야시다(宮下) 등의 중진, 사까데(坂出), 모리무라(森村), 하시모토(橋本) 등의 소장 학자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태동기의 야부우찌 스쿨에 입문한 셈이다. 짧은 첫 교오또 체류기간 중에 불과 두 번의 연구회 참가였지만 나에게서는 너무도 소중한 체험이었다. 학과가 없는 일본의 동아시아 과학사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1주일에 4시간씩의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게 된 것이다.

야부우찌 선생에 의해서 정착된 중국과학사 연구회의 전통은 요시다와 야마다로 이어지고, 지금 다나까(田中)로 계승되었다. 40년의 연륜이 쌓인 것이다. 진분겐의 연구회는 교오또대학의 학부들에서 말하는 “사람잡는 회(會)”까지는 아니라지만, 1년의 몇 주간의 방학 동안을 빼고 매주 엄격한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특징 있는 교육방식이다. 연구발표와 토론, 원전의 역주(譯註) 작업, 그리고 1~2년에 한 편씩 써내야 하는 논문 작성 등으로 짜여진 공동연구 제도인 것이다. 중국과학사의 큰 흐름에서 주제를 설정하여 가장 중요한 고전과 관련된 문헌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역주하고, 1조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해석을 발표해 나간다. 1줄씩 읽고 그 출전을 밝히고 번역문을 다듬고, 관련된 중국과학기술과 일본·한국의 전통과학을 토론하는 방식이다. 1954년에 출판된 저 유명한 『天工開物の研究』는 야부우찌 연구반에서 이루어 낸 5년간의 연구성과였

다. 그것은 중국에서 대륙과 대만에서 번역 출판될 정도로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연구 논문도 중요하지만, 『천공개물』의 역주가 다시 현대 중국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중국과학사 학계에 준 자극이 컸음을 뜻하는 것이다.

연구회에서의 발표와 토론은 진땀 나는 시간의 연속이다. 우스개 소리로 말하는 “팬티 벗기는” 토론과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야부우찌 선생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학자라 했다. 불행히도(?) 나는 외국인이고 그가 환갑이 넘었을 때 처음 만나서 문하에 들어간 덕분에 그저 인자하고 자상하기만 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했다. 연구회의 주요 멤버로는 70년대에 들어서서 야노(矢野)와 미야지마(宮島), 가와하라(川原), 다케다(武田)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선생의 말년까지 기다시라가와 가까이의 선생님 댁에서 연구 모임을 가졌던 수제자들이 되었다.

야부우찌 스쿨

야부우찌 선생이 소개한(추천과도 같은) 덕분에 야마다와 요시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동료가 되었고, 인간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MIT Press에서 출판하게 되어 있는 한국과학기술사의 원고를 넘겨주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서 나는 나카야마(中山)를 통해서 야부우찌 선생의 훌륭한 인품과 학문에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숙명적인 앙금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교오또에서 내 동아시아 과학사의 연구를 계속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미국으로 가기 전, 선생은 고고학자 아리미즈(有光)에게 교오또대학에서의 내 학위 논문 지도 교수를 맡아 주도록 이야기가 됐다면서 논문을 빨리 보내라고 했었다. 아리미즈 교수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66년판 『한국과학기술사』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자료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못내 아쉬워, 하바드-엔징에서의 작업으로 일본과 서유럽의 연구성과와 특히 북한과 중국에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연구의 폭을 넓혀야 하겠다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기에, 선생께 그 기회를 가질 때까지 논문 제출을 미루기를 청했었다. 물론 선생은 그것을 잘 이해해 주었다.

1972년에 교오또에 갈 수 있는 길이 우연히도 쉽게 열리게 되었다. 동경의 고마(高麗)서림 박광수 사장이 『한국과학기술사』를 일본어로 내자고 제안해 온 것이다. 원고료를 선불로 받기로 하고 나는 1973년에 무작정 교오또로 떠났다. 1년 연구 예정이었지만, 그 원고료로는 체제비의 절반

도 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진분겐 과학사연구실의 내 책상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 배고픔의 날들이 계속되었다. 일본 식당의 음식은 왜 그리도 양이 적은지. 1년 반 후 귀국해서 나는 꽤 오랫동안 라면이라는 걸 보기도 싫어했다.

진분겐에서는 두 가지 일이 계속되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연구회에 참석하는 일과 한국 과학기술사의 총론을 일본어 논문으로 쓰는 작업이었다. 일본어로 논문을 쓰는 일은 전에도 했지만, 한국의 전통과학의 역사적 흐름을 총론적으로 써나가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나는 그것을 학위 논문의 일부로 꼭 끝내고 싶었다.

야부우찌 선생과의 거듭된 만남과 담론, 그리고 야마다의 격려와 지원은 큰 힘이 되었다. 선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오또대학의 여러 중진 학자들에게 “앞날이 기대되는 젊은 한국학자”로 소개해 준 것으로 나는 전해 들었다. 겐꾸카이에서의 중국과학 원전을 읽는 시간은 내 한문 독해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다. 야부우찌 선생의 과학 한문의 해석은 여러 차례 나를 놀라게 했다. 책 속에 묻혀 하루 5~6시간을 읽고 쓰는 생활을 꾸준히 계속한다는 것은 연구의 상승 효과를 내게 하는 커다란 추진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 길잡이로 선생이 있었고, 동반자로 야마다가 옆방의 연구실에서 내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었다. 진분겐의 전임 교수 약 50명은 그저 연구에만 전념하는 수도승과도 같은 생활을 몇 십년씩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런 생활을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교오또를 내 학문의 고향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교오또대학에 제출한 내 문학박사 학위 논문(주 논문이 영문으로 씌어지고, 부 논문 2편이 일본어였다)에 대해서 야부우찌 선생은 단호한 어조로, 교오또대학의 역사학 교수라면 영어로 쓴 한국과학사 논문을 심사 평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니이덤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의 일본어 번역을 보면, 선생의 그런 학문적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야부우찌 선생을 중심으로 모인 교오또의 동아시아과학사 연구그룹은 그의 학풍에 따라 하나의 훌륭한 공동연구 조직을 형성하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1980년대 후반에 일본 문부성 발령의 교오또대학 객원교수로 임명되어 1학기 10주에 걸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한국과학사 집중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강의실에 모인 학자들은 야부우찌 스쿨의 멤버들이라고 호칭하곤 했다. 물론 그것은 내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 후 1990년에 1년 동안 영국 케임브리지 니이덤 연구소에 방문 교수로 있던 내 연구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니이덤 스쿨로 부를 수 있는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1999년 3월에 교오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공개기념 강연자로 초청되어 강연하는 자리에서 첫머리에 야부우찌 스쿨 호칭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분겐은, 하바드의 옌징 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고의 동아시아 연구기관입니다. 또 과학사연구실은 케임브리지의 니이덤 연구소, 북경의 자연과학사 연구소와 함께 동아시아 과학사 연구의 3대 중심입니다. 케임브리지와 북경의 연구소에서는 “협동(協同)” 연구에 의한 연구 제도가 정착하고 있습니다만, 진분겐은 그 유니크한 “공동(共同)” 연구 전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오도와 케임브리지의 동아시아 연구그룹, 저는 그것을 각각 야부우찌 스쿨, 니이덤 스쿨이라고 이름짓고 있습니다만, 두 기관에서 연구를 해나가는 방식은 동서의 과학사 연구와 중국학 연구의 학문적 전통을 배경으로 한 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부우찌 스쿨에 대한 제 깊은 인상은, 동서의 고전을 바탕으로 한 착실한 공동 역주 연구에 의하여, 중국 전통과학의 본질을 구명하여 역사적 해석에 파고든다는 학풍이 쌓아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부우찌 스쿨의 학자들은 “게규카이”라는 이름의 공동연구 체제를 50년 이상이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학문적 업적은 니이덤 스쿨의 그것과 함께, 20세기 최대의 동아시아 과학사의 연구성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의 방식은 교오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 70년의 역사가 낳은 공동연구 제도의 한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

선생은 한국의 전통과학과 기술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 학자였다. 일찍이 고구려 사람 고선지에 주목했고, 나라지방에 남은 옛 백제 신라인들의 과학기술 문명에 주목했다. 고우리야마(群山)박물관에 나하고 같이 가면서 선생은 그 지명은 한국어의 고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는 또 세종시대의 칠정산 내외편을 높이 평가한다는 견해를 여러 번 강조하곤 했다. 칠정산 외편은 중국 명대에 엮어진 회회력보다 훨씬 훌륭한 회회력 한역 편찬서라 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역법인 수시력의 연구에서 칠정산 내외편은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하고, 그 연구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또 한국 전통음식과 생활 양식에 각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스카 나라시대의 일본 사람들은 백제식 옷을 입고 백제식으로 먹고 백제식으로 생활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고 했다. 1981년 제1회 한일과학사 세미나로 한국에 왔을 때 선생은 고궁 산책을 즐기고 경주여행을 그렇게 좋아했다. 특히 경주 평양면옥의 냉면과 삼계탕의 맛은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이라고 했다.

선생은 녹차를 좋아했다. 한국의 녹차 맛이 이렇게 훌륭한데, 차 마시는 습관이 중국과 일본처

럼 대중화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송능의 구수한 맛을 설명하다가 교오토의 다도(茶道) 명문가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찻차의 맛에 화제가 자연스레 넘어가면서 선생은 그 공통성을 새삼스레 깨닫고 기뻐하기도 했다.

이제 니이덱에 이어 야부우찌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니이덱은 그의 이름을 딴 연구소와 방대한 중국과학사 연구 프로젝트가 있지만, 야부우찌는 그런 것을 조직하지 않았다. 스쿨 멤버를 교육하고 함께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을 보람으로 여긴 것이다. 두 분의 위대한 중국과학사 학자가 남긴 그 학문의 발자취에서 우리 후학들은 그 학풍의 향취를 본다.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빈다.